성령 강림 대축일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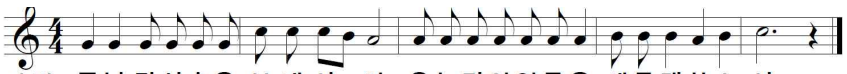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사도 2,1-11

[화답송] ····· 시편 104(103),1ㄱㄴ과 24ㄱㄷ.29ㄴㄷ-30.31과34 (◎30 참조)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제 2 독서] ····· 1 코린 12,3ㄷ-7.12-13 (또는 로마 8,8-1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 요한 20,19-23(또는 14.15-16.23ㄴ-26)

[성가안내]

- 입당성가 [145] 임하소서 성령이여
- 봉헌성가 [142] 오소서 성령이여
- 성체성가 [165] 주의 잔치
- 파견성가 [144] 주의 얼이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후 모두 함께 합송합니다.

성령강림 대축일 부속가 –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빗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6월5일	이영노 율리안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고은경 모니카	고은경 모니카	김종선 비비안나	한창희 바오로	김은아 미카엘라
6월12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민덕미 안젤라	김하나 미리암	장동엽 헨리코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전 마지 마가렛	가족
이 정진 안토니오	이 영애 레지나
김 용기 요셉	경 가밀라
정 정옥 스테파노	김 유나 실비아 가족
유 혁일	유 희순 그레이스
김 기선 아오스딩	김 영숙 카타리나
생미사	**봉헌**
이 영애 레지나/ 이 조앤 그레이스	가족
노 시원 임마누엘라/노 시윤 글로리아	김 유화 데레사
민 완준 필립보 (건강 회복 위해)	이 경자 율리안나
민 완준 필립보	경 가밀라
민 완준 필립보	민 정신
김 슬기, 김 야곱 가족 (감사)	익명
조 어거스틴, 카타리나 가족 (감사)	익명
임 금종 마가렛, 김 승범 프란치스코 (생일 축하)	하늘처럼 성가대

● 오늘, 6월 5일은 '25주년 기념 바자'

공동체 설립 25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오늘 준비한 '바자회'에 많은 신자들께서 참석하시어 감사와 기쁨에 참여하시며 공동체가 하나되는 체험하시는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울뜨레아 피정이 있습니다.

- 일 시 : 2022. 6. 10(금) ~ 6. 11(토)
- 장 소 : 뉴튼 수도원
- 참가비 : $150
- 접 수 : 장 혜윤 크리스티나

● 청년 'Zoom' 묵주의 기도 (레지오)

- 매주 목요일 밤 9시
- Meeting ID : 873 6206 6000 Passcode : 368464

● 청년 미사 있습니다.

- 일 시 : 2022. 6. 11. (토) 오후 6시
- 장 소 : 아랫 성당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예수 성심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내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랫 성당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2E
청년 성가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3B

[2022년 6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

광고주를 찾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이정주 (소화데레사) 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고종호 (마태오)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박명순 (모니카)
이경희 (미카엘라)

용서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 이 철희 -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는 것의 힘을 크게 봅니다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일대로 따라 살아야 할 이유나 원칙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에 사람의 기준만 적용한다면 눈으로 보았다는 것들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면, 눈으로 보는 것의 한계에만 붙잡혀 살지 말고 다른 기준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시기를 마치는 때에 맞이하는 성령강림 대축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공동체가 시작되었으니, 생일로 말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 가지 표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의 힘'이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의 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특징인,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에게 경험을 넘는 다른 것을 말해주려면, 현실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알아듣기를 어려워합니다. 누군가가 심오한 진리를 체험하고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해주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내게 자기 경험을 말해주는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꾼 힘이었다고 하면 평가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의 일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최고로 여겨서 이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내게 다가온 일을 이해하는 자세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는 방법일 것이고,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 하지는 않을 일이면서도,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실천할 생각이 있다고 할 사람이 드러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은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시기 50일 전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었던 일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실지 간단하게 요약하십니다. 내용은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죄의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는 사도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될 것이고, 그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자기의 생각을 담아 일부러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아마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어겨 제 맘대로 행동한 결과로 만든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공동체에 맡겨진 권한이 제한된 일입니다.

몸을 움직여 죄를 만든 사람이 자신이 잘못 행동한 일을 인정하고, 그 죄와 죄가 만드는 삶의 결과가 자기의 삶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겸손하게 청할 때,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 죄의 용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 말고, 다른 자세와 태도로 자신의 삶을 대하는 사람에게 죄의 용서는 실현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 산다는 사람들이면서도 이 죄의 용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도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든 제 맘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도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은 분명히 있는 법입니다. 사람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하느님의 모상을 갖추고 그것을 드러낼 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제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저 세상만물들 가운데서 그저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다 옳은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지성을 갖춘 존재는 무엇이겠습니까?(천사) 사람들이 하기 쉬운 착각은 자기가 가졌다는 위치를 한 없이 높게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위치가 지구보다 높이 올라가고 하느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힘을 세상에 드러낼 줄 아는 위대한 존재로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실천할 힘을 주시라고 하느님께 청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의 힘이신 성령이시여, 당신께서 주시는 선물의 힘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용서를 실천하여, 평화를 이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게 하소서. 아멘."